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19. 7.

- 여유와 자유, 그리고 봉사와 후원 -

“ 당신의 삶이 다시 한 번 활짝 꽃 피울 수 있다는 확신과
또한 전문화에서 벗어나 반대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어
더 큰 세계를 향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열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노년의 의미 중 : 폴 투르니에 지)

작년 이맘때 저는 30년 이상을 수도자이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한 직장인으로서 별 탈 없이 꾸준히 살아온 긴 시간을 ‘정년 퇴직’ 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참 은혜롭고 행복했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기에, “고생했다. 좀 쉬어라.” 하는 말이 와 닿지 않았었습니다. 차라리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좀 무리했거나 힘들었던 적이 기억나긴해도 그것은 수도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써 당연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모든 일에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주님말씀 그대로였기에 나는



좀 세월이 지나서는 하신 일들에 놀라게 되거나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기쁘고 감사한 일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알고 행복해하지 않았었던가, 뭐가 어려웠더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곧 인생의 2막이 펼쳐지면서 활발하게, 가끔은 바쁜 듯이 돌아다니듯 살아온 내 삶에서 벗어나 분명히 정적인 상태로 들어가 시간의 여유가 많을텐데 무슨 일이 펼쳐질지...현재까지 익

속하기만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후의 수도자로서 삶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나름대로 수련기 시절, 진주 양로원 실습과정 중 마음 깊이 느끼게 되어 줄곧 내면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새 삶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제2의 인생 시작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퇴직 2



년 전부터 슬슬 ‘노인 미술심리상담 치료’ 등 죽음을 앞둔 노인들과 함께 하는 삶에 필요할 것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해야리고 있었어요. 수녀님들의 공동체에 힘을 더해주면서도 또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마지막 호흡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도직은 없어 보였지요. 특히 기도와 시간이 들어가는 깊은 인간관계 맺음이 가능할 테니까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대로 주셔서 현재 저는 조남동 글라라의 집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모든 것을 넘겨주고 훌га분하긴 해도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찡한 마음을 안고서 바로 7월 초 조남동 주민센터에 어르신 반열로 신고했어요. 머리만 희지 얼굴은 팽팽하고 젊은 제가 말이지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너무 많고 행어나 필요할까 하고 싸 들고 온 많은 자격증들은 전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저의 주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괜히 나서서 요구되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 다 문의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의 자리와 내 컴퓨터 등이 없어 다음 봉사를 위해서는 어디선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며칠 만에 처지가 급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곧 큰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기도실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하고 줄곧 독서를 해도 시간이 있다는 것과 나를 찾는 이가 거의 없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공동체 자매들은 무척 바쁘니 결그적 거리지 않는 수준으로 내 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요.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무척 필요한 존재로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면서 빈 자리 채우기를 할 수 있는데, 와상환자들에게 책 읽어 드리기부터 상담, 말벗, 지킴이, 식사수발

정리, 놀이, 교육, 성가 연습, 올겐, 기도 등등 할 일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것도 시간 많은 제가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까다로운 입맛의 어르신 식사수발 같은 것은 깊은 인간관계 맺음의 초석이랍니다.

사회적 논리 안에서 살아야 할 때는 하는 수 없이 일이 우선시되고 바빠서 아무리 좋은 의지와 사랑을 지녔다 해도 실행하기가 어려우나 시간이 많고 자유롭다 보니 모든 것은 의미를 두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지나온 보화로운 삶을 그분들의 보조에 맞추어 들어주면서 그들만의 삶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음이 즐겁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어서 주님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후원” 이겠지요?

헨레 나웬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우리는 작으면서 크고
우주속의 작은 입자이면서
하느님의 자랑거리이며,
하찮고 겁이 많으면서도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자녀들이다.

내가 사랑 아닌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늘 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언하고 감사하며
칭찬하지 못할 이유는?
앞으로의 세월을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이자
사람들과 우정을 깊이 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즐겁게 기다리리라
매듭을 짓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유보순 마리아. FMM.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6월1일 ~ 6월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영전 강경아 강들순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영조
강지우 고대완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유희 구유희정 구인순 권순익
권순익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수 김득현 김
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미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임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정매 김정숙(하나) 김정숙
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종연 김
준연 김준희 김진미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철형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옥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 노봉근 노석심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
식 민정웅 박고우니 박노성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길 박성준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연애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
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희순 방진 배인호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빛소금이티오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성영주 성옥이 성인희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영희 송정애 송혜경 시화
베드로성당 신승일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
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정자 오지연 우복명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선주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
스 욱동배 윤경숙(제일) 윤규현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봉수
윤소라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경희 이관훈 이광희 이근
태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상문
이선경짬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재 이영란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정란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수남 임승옥 임지
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
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득근 정미영 정민정 정복순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일배 정재영 정진명 정혜경 정희
파키스탄 조근미 조명숙 조상위 조정희 조중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지정
희 진숙인진신아 최금영 최두진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영애 최
옥자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정선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추상식
추수옥케냐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
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